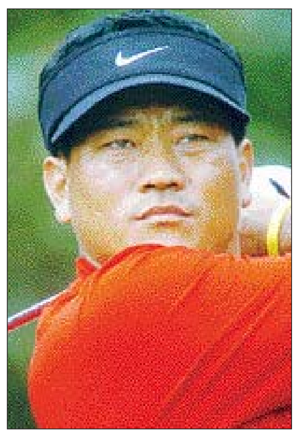
안방극장까지 스포츠 스타 '파워'

최경주·김연아·추성훈의 삶 잇따라 드라마로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한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예상 밖의 승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결정적인 한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성공을 일구어 나가는 스포츠 스타들의 모습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짜릿하고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 짜릿한 순간을 만들어낸 선수들의 진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잇따라 기획되고 있다. 현재 김연아를 모델로 한 피겨스케이팅 드라마 '질 수 없다', 역시 피겨 스케이팅을 소재로 한 '트리플'(가제), 프로골퍼 최경주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탱크의 눈물'(가제),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등이 제작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최경주〉

열아홉 살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니시리즈 '질 수 없다'는 올 연말 공중파 방송을 목표로 최근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질 수 없다'는 '피겨 요정' 김연아와 '피겨 얼짱' 신나희를 모델로 제작, 19세 동갑내기 피겨 스타이자 라이벌 관계인 이들의 인생 스토리도 그려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몽'과 '쾌도 홍길동' 등을 히트시킨 외주제작사 올리브나인이 제작을 맡았으며, 드라마 '늑대' 등의 집필을 맡아온 김경세 작가가 대본 작업에 착수했다.

'트리플'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18세 피겨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이윤정 PD가 연출을 맡게 되자 올 연말 방영 예정임에도 벌써 화제가 되고 있다. 이 PD는 지난 2005년 MBC베스트극장 '태릉선수촌'을 통해 이미 스포츠 드라마를 시도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프로골퍼 최경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탱크의 눈물'은 20부작 미니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사인 (주)필마픽쳐스는 최경주를 드라마화하기 위해 수년 동안 최경주와 동행 인터뷰를 하고, 최경주의 고향인 완도를 수차례 방문해 부모님과, 친구, 골프에 입문하게 한 최경주의 은사들을 취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드라마는 올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대본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재일교포 K-1 파이터 추성훈 선수의 파란만장한 삶도 드라마로 옮겨질 예정이다.

출신 문제로 국내 유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탈락했던 그가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대표로 부산아시안게임에 출전, 결승전에서 한국대표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하기까지 추 선수의 실제 인생은 '드라마' 같았다.

드라마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일본인으로 살면서 그가 느껴야 했던 애환을 비롯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추성훈 드라마'가 최종 성사될 경우 드라마 '투명 인간 최장수', '건빵선생과 별사탕', 영화 '댄서의 순정', '청풍명월' 등으로 잘 알려진 박계옥 작가가 집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작가는 "추성훈측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 중"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시청자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

〈김연아〉

5집 음반 낸 '에픽하이' "미친 듯 만든 음악…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멤버들)

그럼에도 그룹 에픽하이의 5집 '피시스, 파트 원(Pieces, Part One)'은 음악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고마움을 되새김질하며 만든 음반이다.

4집은 팬들이 외면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무겁고 어둡고 칙칙한 사운드로 밀어붙였는데 큰 사랑을 받았고 덕택에 용기를 얻었다. 팬들이 창작 영역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라고 고맙게 여겼다.

멤버 전원이 작사·작곡한 5집은 1년 넘게 틈틈이 쓴 작업물과 즉흥적인 충동이 빚어져 하이브리드도, 크로스오버도 아닌 신선한 감각물로 채워졌다.

"철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돋보이게 할 음악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편에서 좋은 가요를 담으려 했다"는 음반 수록곡은 차례로 '비(Be)'부터 '연필깎이'까지 타블로, '걸(Girl)'부터 '에이트 바이 에이트(Elght By Eight)'까지 디제이투컷, '데칼코마니(Decalcomanie)'는 미쓰라진이 작곡했다.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가사를 쓴다면…. 미치지 않은 한 왜 지하실에 처박혀 가족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몸도 썩어가면서 음악을 하겠어요. 치과 가본 지 2년, 병원 진료를 받은 것도 3년이 됐어요. 음반에 '낙화'라는 제 솔로곡이 있는데 '꿈을 좇으며 너무 많은 소중한 걸 잃어가는 건 아닐까'란 절박한 심정이 담긴 곡이죠."(타블로)

이런 작업이 반복되다보니 정규 음반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꾸준히 정규 음반을 내겠다고 다짐했건만 요즘엔 회의가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음반을 만드느라 진을 빼지만 한두 곡 외에 나머지 곡은 다른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묻혀버리고 말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길 바란다면, 오히려 서너 곡씩 담은 싱글 혹은 미니음반이 나을 것 같아요. 음악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1990년대 제가 그랬듯, 대중이 마음으로 음악을 들어줬으면 합니다"(타블로) /연합뉴스

4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테이큰	30만2천866	88만5천701
2	스트리트 킹	11만2천136	14만3천23
3	삼국지:용의 부활	10만5천503	93만8천182
4	킬 위드 미	8만3천678	9만9천980
5	G.P 506	6만2천556	86만3천631
6	버킷 리스트:죽기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4만2천245	14만363
7	연의 황후	2만9천669	17만4천839
8	패솔로지	2만8천881	3만7천649
9	추격자	2만5천618	499만5천58
10	나의 특별한 사랑이야기	2만3천724	14만7천445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 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	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9.3
2	이산	MBC	28.6
3	조강지처 클럽	SBS	26.5
3	엄마가 뿔났다	KBS2	25.6
5	행복합니다	SBS	21.9
6	온 에어	SBS	21.6
7	아현동 마님	MBC	20.6
8	무한도전	MBC	19.0
9	KBS뉴스 9	KBS1	18.5
10	SBS뉴스속보〈이소연 귀환 첫 인터뷰〉	SBS	17.2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나는 전설이다	스릴러
2	명장	액션
3	워	액션
4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드라마
5	미스트	SF
6	황금 나침반	판타지
7	무방비도시	액션
8	꿀벌 대소동	애니메이션
9	원스 어폰 어 타임	코디미
10	3:10 투 유마	액션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미안해요	거미
2	다 줄꺼야	이승기
3	아이처럼	김동률
4	원 모어 타임	쥬얼리
5	사랑해	마이티 마우스
6	기억을 걷는 시간	넬
7	슬픈 다짐	다비치
8	러브	브라운아이드 걸스
9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
10	바보에게…바보에게	박명수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팩스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팩스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팩스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